

부산의 도시 형성 과정을 해명하고 있다. '타자'를 '권력'과 대립하는 개념쌍으로 설정한 방식이 비교 분석의 밀도를 다소 낮게 보이도록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두 개념은 은유적·비유적으로 치밀하게 직조되어 있어서 타자도시의 양상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도시구성원의 삶의 구조를 일인칭 시점에서 현실로 제시하고, 이를 도시계획론·사회구성론·계급론·인식론 등 다양한 이론 체계의 제3의 관찰자 시점에서 중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도시화 현상을 밀도 있게 재구성하는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타자화의 현실을 단순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시금 현실에 개입하도록 할 가능성도 제시한다.

심원건축학술상이 역사·이론·비평·미학의 네 축을 아우르는 건축학 연구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세 논문 모두 역사적 사실의 엄밀한 추구와 신뢰할 수 있는 사료의 충실한 구성이라는 기본 요건을 높은 수준에서 충족하였다. 홍현도의 성나연의 논문은 주제 설정이 명료하고 이를 해명하는 논증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다만 두 논문은 현실 비판적 논지가 다소 약하며, 독자의 관점에서 현대의 분석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 내려고 할 때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조미화의 논문은 현실의 삶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 그 원인과 구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도시의 형상과 현상이 추상적 관념으로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독자에게 구체적 인식과 실천 가능성을 열어가는 서술에 이르기까지, 역사·이론·비평·미학의 네 차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가장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그의 논문은 특히 학문적 엄밀성과 비판적 실천성을 동시에 구현함으로써 심원건축학술상의 취지에 부합하며, 동시에 도시 주제의 후속 연구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평

### 심사위원 김현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번 18회 심원건축학술상 공모는 여러 면에서 고무적이었다. 응모 편수(다섯 편)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다소 열세였던 근현대시기를 다룬 저작이 다수였고(네 편), 게다가 수준도 이전보다 향상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보작으로 오른 조미화의 <권력도시와 타자도시: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부산 도시 형성사>와 성나연의 <전후 서울의 탄생 1952-1986: 토목기술자, 도시계획가, 건축가의 수도 구상과 실천>이 그렇다. 또 다른 후보작인 홍현도의 <조선 후반기 경복궁의 유지와 운영: 고종 대 중건 이전을 중심으로>는 17회에 이미 본선에 올랐다가 아깝게 낙선한 저작이다.

우선 조미화와 성나연의 응모작이 모두 탁월한 수작이었고, 따라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음을 먼저 말해두자. 흥미롭게도 둘은 아주 다르면서도(예컨대 각각 부산과 서울이라는 서로 다른 도시를 대상으로 함) 함께 비교 고찰할 중요한 접점이 있었다(예컨대 둘 다 도시 변화의 '과정'에

주목함). 홍현도의 응모작도 매우 우수하지만 앞의 두 연구 작업이 더 방대하다 보니 건주어 아쉬움이 있었고, 재응모작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응모작으로부터 일부 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나 크지 않았는데, 홍현도의 연구에 대한 견해는 그때의 심사평을 참조하는 게 좋겠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 성나연의 <전후 서울의 탄생 1952-1986>은 한국전쟁 이후 30여 년에 걸친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체'와 '과정'에 주목해 통합적으로 고찰한 점이 두드러진다. 저자는 그 기간을 세 시기(1952-1965; 1966-1974; 1975-1986)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주도했던 계획가들(토목기술자, 도시계획가, 건축가)의 면면과 지형도를 드러내며, 그들이 지향한 계획의 방향성을 논증했다. 그리고 각 시기 주요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 실행됐는지 보여줌으로써, 현재 서울의 골격이 형성된 맥락을 자세히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그간 파편적으로 인지했던 서울 도시계획 및 건축의 핵심 지층과 역사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김수근의 세운상가 및 여의도계획에 관한 전후 맥락, 홍사천과 김형만의 작업 등이 단적인 예다. 이 응모작의 우수함은 저자의 폭넓은 기초 연구(1차 자료와 2~3차 문헌 검토, 관계자 인터뷰,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등), 연구 자료와 맥락을 꿰뚫는 통찰력,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글쓰기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조미화의 <권력도시와 타자도시>는 근현대기에 걸친 부산의 변화를 '계획에 따른 성장'과 '계획 밖에서 일어난 성장'이라는 '이중적 도시 구조'로 파악하는 가운데, 새로운 권력(이데올로기)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도시의 취약계층이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는 '타자화(othering)의 과정'에 주목했다. 그리고 1876년 개항부터 지금까지 150년에 걸친 역사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며 각 시기마다 도시의 이중 구조가 재생산돼 왔음을 보여준다. 이 응모작의 가장 큰 특징은 연대기적 분석에 따른 역사의 축적을 '형태학적 분석'으로 시각화한 점인데, 이를 통해 비계획의 타자도시에도 내재하는 형태 논리가 드러났다. 이 같은 연구에는 1910년대 부산의 지적원도 2,000여 장을 재구성하고 다시 그리는 등의 방대한 작업이 동반됐고, 결과적으로 글이라는 텍스트만으로 말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이미지 텍스트가 만들어졌다. 이는 하나의 새로운 역사쓰기 방법이라 하겠는데, 단행본 출판과는 별개로, 일정 공간 내에서의 전시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논리적으로 글을 쓸 줄 앎과 동시에, 논지 전개를 이탈리아 칼비노의 소설 『보이지 않는 도시』와 오버랩 시키는 전략적 방법까지 구사했다.

성나연과 조미화의 응모작을 비교컨대, 전자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통합한 실증적 역사를 지향했다면, 후자는 통합적 역사이되 뚜렷한 논점에 입각한 (타자의 도시에 대한 복권을 꿈꾸는) 비평의 역할까지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말하는 계획의 주체는 후자의 관점에서는 권력도시의 주체라 하겠는데, 후자는 그보다 타자도시의 주체, 즉 도시계획에서 배제되거나 추방되는 세입자, 불법 점거자, 도시난민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부산에서는 건축가들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는 후자의 서술(31쪽)은 서울의 도시계획에 건축가들이 떠오르게 되는 상황을 주시한 전자의 구성과 흥미로운 대비를 이룬다.] 치밀한

실증의 방법론이나 서울의 도시건축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측면을 보면 전자의 손을 들어줄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쓰기 방식(형태학적 분석, 매력적 이미지 작업, 문학 텍스트와의 교차배치 전략 등)의 참신성, 뚜렷한 자기 논점, 그리고 그동안 서울에 집중됐던 시선의 이동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후자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특히 에필로그에 표현된) 저자의 진한 애정과 타자의 아픔을 보듬고자 하는 진정성은 학문 이상의 울림을 준다고 생각한다.

수상자로 선정된 조미화에게 큰 축하를, 아쉽게도 낙선한 성나연과 홍현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결과와는 별개로 셋은 모두 이미 이후로도 함께 건축을 논할 우리 건축계의 훌륭한 자산이요 동학(同學)이 됐다. 다 같이 기뻐할 일이다. 이번 18회를 끝으로 6년에 걸친 심원건축학술상 심사위원의 임기를 마친다. 매년 심사 때마다 여러 편의 두꺼운 응모작을 읽는 일은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특권적 공부의 기회였다. 이런 기회를 준 심원문화사업회와 관계자 분들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그리고 좋은 연구로 응모해준 모든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심사평

### 심사위원 서정일

M! design & research 대표

성나연, <전후 서울의 탄생 1952-1986: 토목기술자, 도시계획가, 건축가의 수도 구상과 실천>

현대대도시이자 세계도시의 하나인 서울의 난해한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마땅히 그 발전과정을 잘 이해하고 통찰해야 한다. 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저자는 건축분야를 비롯하여 최근까지 축적된 서울연구의 성과들과 자료들을 공들여 취합하고 세심하게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계획·행정 중심 서술의 추상성과 편협함을 뛰어넘었다. 덕분에 우리는 서울의 발전과정을 더 구체적이고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의 말대로 도시개발의 결과는 "사회적 기술·지식과 권력이 맞물린 산물"일진대 이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권력만큼이나 전문지식·기술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 저작은 현대서울이 시민의 열망과 참여 이전에 권력, 지식, 기술의 메커니즘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나아가 세운상가, 여의도, 영동 같은 주요사업들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정치권력에 굴종하는가 하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문지식들 간에 서로 경쟁하고 결국 조정·통합되곤 하는 일반적인 현상도 보여 준다.

이 "과정"은 어떻게 더 잘 서술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과정을 발전함으로써 무엇을 더 배울 것인가? 물어야 할 질문들이 많다. 가령 그 전문지식들의 유래와 원천적 성격들은 무엇인가, 지식은 결과물로서의 도시공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떤 수준의 자율성과 윤리성